

## 자매들을 위한 공과

### 5 과

##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여자,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약속

성경: 창 2:18-24, 3:1-6, 15, 고전 11:3, 딤편 2:13-14

- I.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고전 11:3:**
- A. 고린도전서 11:3 은 우주적인 머리의 권위를 계시하는데, 우주 안에는 머리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가장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각 남자의 머리이시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인간은 모든 동물과 식물의 머리이다—창 1:26-28.
  - B. 신성한 통치적인 정하심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은 여자를 그런 식으로 창조하셨다—창 2:18-24, 딤편 2:13.
  - C.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들은 남자의 머리 아래 있지만 그 남자들은 그리스도가 없기에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 D.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믿는 이들이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누리는 누림이 우리를 하나님의 머리 권위 아래 있게 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합당한 질서를 세우게 된다.
  - E.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곧 신성한 권위 아래 있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면 반드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 II.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다음에 하와가 지어졌으며”—딤편 2:13, 창 2:18-24:**
- A. 디모데전서 2:13 에 있는 바울의 설명은 우리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분의 태초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비교 마 19:8.
  - B. 디모데 전서 2:13 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를 말해준다.
- III.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딤편 2:14, 창 3:1-6:**
- A. 여기(디모데 전서 2:14)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두번째 이유가 있다.
  - B. 하와가 뱀에게 속은 이유는 그녀가 아담의 머리 권위 아래 머물지 않았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머리를 덮지 않고 악한 유혹자를 직접 접촉했기 때문이다(창 3:1-6).
    1. 사람이 타락한 내적인 원인은 여자가 머리의 권위를 취했기 때문이다—창 3: 2-3, 6
    2. 하와가 뱀에게 속임당한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잊었기 때문이다. 마귀는 교활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알고(벧전 3:7) 여자를 자기의 목표로 삼았다.
    3. 여자가 뱀에게 무슨 말했든지 상관없이 그녀가 그곳에 서서 뱀에게 말하는 한 그녀는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자가 머리의 권위를 취했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4. 하와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악한 자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돌아가서 남편 뒤에 숨는 것이었다.
    5. 하와는 악한 자와 말하지 말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악한 자에게 말하는 동안 그의 사악한 생각이 그녀의 생각 속에 들어갔으므로 심지어 지식 나무를 먹기도 전에 이미 원수의 관념으로 그 생각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6.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꾀임에 빠지게 하고 덮에 걸리게 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의심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뱀에게서 나온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7.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느 말씀에도 의문을 갖지 말고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 C.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1. 만일 하와가 영으로 돌이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2. 우리의 남편께서는 우리의 영에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생각 안에 머문다면 그것은 우리가 머리의 권위를 취하고 우리의 생각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타락이 여자를 통해 발생했고 구출하신다는 약속도 여자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매들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A. 사람이 창조된 후에 사람에게 발생한 일은 여자와 아주 많은 관련이 있다.
- B.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그분의 목적 안에서 그분의 길을 가지실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자매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매우 많이 달려 있음을 볼 수 있다.
- C. 사람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남자를 통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개입하셨다—창 3:1-6, 15:
  1. 하나님의 원수인 간교한 뱀은 여자를 통하여 들어왔다—창 3: 1-6.
  2.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이 들어왔던 통로와 같은 통로인 여자를 통하여 원수를 패배시키려고 작정하셨다—창 3:15.
  3.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여자를 통해 들어왔고, 같은 3장에서 하나님은 이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씨를 산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D. 결국 우리는 여자가 그리 나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게 된다. 비록 사탄은 여자를 통해 들어왔지만 뱀의 머리를 박살 낼 그 씨도 역시 여자를 통하여 들어오셨다.
  1.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씨이셨다.
  2. 모든 자매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예수님이 여자를 통하여 오신 날 이후로 신약에는 여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3. 신약에는 여섯 마리아이 기록이 있다. 첫번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다. 마리아에게 여자의 씨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녀의 씨이다.
- E. 우리는 합당한 인간의 위치는 여자의 위치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위치에 있다.
  1.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자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즉시 사탄에게 삼켜질 것이다.
  2. 의심할 것도 없이 창세기 3장 15 절의 여자는 하와이다.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의 위치를 취하는 백성을 상징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 곧 그분의 아내이다.

## 사역의 말씀 발췌문:

### 모든 사람의 머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머리라고 말함으로 남자가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며,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를 세워준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는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각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는 개인과 관련된다.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엡 5:23), 개인적으로 믿는 이들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직접적인 머리이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신성한 통치의 안배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은 여자를 이러한 식으로 창조하셨다(창 2:18-24, 딤후 2:13).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에 따르면(고전 11:4)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쁨 부음받은 분, 곧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신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 아래 계시며, 기원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머리이시다. 이것은 신성한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우주적인 머리의 권위를 계시한다. 우주 안에는 머리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정점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머리이시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며, 사람은 모든 동물과 식물의 머리이다(창 1:26-28). 본래 우리 안에는 이러한 머리의 권위가 있었다. 이러한 머리의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합당한 질서를 유지했다. 그러나 사람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 질서가 깨졌다. 겉으로 보기에 교양이 있고 세련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개인생활에, 특별히 결혼생활에 무질서가 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남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모든 불신자들은 무법 상태이다. 그들은 강요에 의해 인간 정부의 다스림 아래 살지만, 그들 중 대다수가 정부에 대해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자신들을 다스리는 권위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이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로 이끌리며, 남자와 여자 사이의 합당한 질서가 세워진다. 우리는 머리의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게 되며 남자는 여자의 합당한 머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행정 안에서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행정 안에서 머리의 권위와 관련된다. 천사장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에 반역하여(겔 28:13-18, 사 14:12-15, 마 25:41), 자신의 어둠의 왕국을 세웠고(12:26, 골 1:13), 그 자신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반역적인 천사들을 처리하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지만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자신을 따르게 했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요 3:8, 히 2:14, 행 26:18, 골 1:13).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 타락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은 이제 교회이다. 교회로서 우리는 천사들에게, 곧 반역적인 천사들과 복종적인 천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머리의 권위에 반역하지 않고 그분의 머리의 권위, 신성한 권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머문다. 우리는 장차 올 왕국과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을 뿐 아니라, 반역적인 현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러한 누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로 이끌어 올 것이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를 세워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신성한 권위 아래 살고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그분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죽음 당한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계신 것을 본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가이시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어린양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에 앞장서서 복종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땅은 반역으로 가득하다. 사탄은 앞장서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반역들 한 가운데, 구속받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은 이들로 구성된 한 몸이다. 이 몸은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신 분의 몸이다.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반항해야 한

다. 비록 이 땅은 반역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을 반항한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12장, 3165-3167쪽)

### 여자가 머리의 위치를 취함

이제 우리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내적인 원인을 보아야 한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한다. 사람이 타락한 내적인 원인은 여자가 머리의 위치를 취한 것이다(2-3, 6절). 하와가 남편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뱀의 덫에 걸렸던 것이다. 간교한 마귀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다는 것(벧전 3:7)을 알고서 여자를 목표로 선택했다. 여자가 뱀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서서 뱀에게 말한다면, 그녀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가 머리의 위치를 취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와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악한 자와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돌이켜서 남편 뒤에 숨는 것이었다. 만일 하와가 이렇게 했더라면 간교한 자는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기본 원인은 아내가 머리의 위치를 취한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 여자의 의미

여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 이것이 여자의 의미이다. 로마서 7장의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54장 5절을 지적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유일하고 우주적인 남자이시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내의 일부이다. 사람의 위치는 남편의 위치가 아니라 아내의 위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다. 머리 되심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심지어 남자에게 있지도 않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의 위치는 자매들의 위치와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매들이나 형제들 모두가 여자이다.

### 여자의 위치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과 머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덮으심 아래 항상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하며, 결코 머리의 위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전 11:3, 5, 14-15).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께 돌이켜야 한다. 나는 주님의 긍휼로 이것을 배웠다. 만일 내가 에덴동산의 하와였다면 마귀가 왔을 때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돌이켜서 남편 뒤에 숨었을 것이다. 나는 아담을 머리로 삼았을 것이며, 아담이 머리로서의 지위를 행사하게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 여자의 실패

여자의 실패는 그녀가 남자를 뛰어넘어 머리의 위치를 취한 것이다(딤후 2:14 참조). 하와의 실패는 사람이 머리의 위치를 취한 것을 예표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뛰어넘고 제쳐 놓은 것을 상징한다. 똑같은 원칙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주님을 제쳐 놓고 스스로 행동할 때마다 패배한다. 만일 우리가 승리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남편이며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결코 주님 없이 혼자서 하지 말라.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내인 위치를 망각하고 머리의 위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며 결코 남편의 위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에덴동산의 하와는 우리를 대표한다. 우리 중 거의 모든 사람이 때로는 하와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하와가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혼자서 대처했다. 우리가 기도를 아주 많이 했더라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신 분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떤가? 왜 여러분은 항상 혼자 유혹에 대항하는가? 여러분이 홀로 어떤 상황에 맞선다면, 여러분은 남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기본 원인이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말하는 동안 나는 나의 남편을 의지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그분 안에 숨어야 하며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또 다른 하와가 되어 패배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탄만 너무 탓하지 말아야 함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머리의 위치를 취했고 우리의 남편이신 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자신을 탓해야 한다. 우리는 아내인 것을 잊어버린 채 머리의 위치를 취했다.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을 다룰 때 주님 없이 단독으로 그들을 다룰 수도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자녀들을 돌보는 법을 안다. 나는 수년 동안 어머니였다. 나는 해야 할 것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즉시 하와가 된다. 비록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은 패배한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머리와 남편으로 삼음으로써 아내의 위치를 버리고 남편의 위치를 취했다.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거나 그분을 떠나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이미 패배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성질을 처리할 때에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 성질에게 패배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그

러나 만일 우리가 성질을 이기려고 혼자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노력 자체가 큰 죄이다. 성질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의 위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주님, 성질을 이기고 지는 것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에 대해 당신을 의지합니다. 저의 성질을 처리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의 남편이십니다. 저는 단순하게 당신을 의지합니다. 제 자신을 머리 삼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이 저의 머리이십니다. 주님, 저의 기질을 처리하소서.” 만일 우리가 모두 이러한 공과를 배우고 주님 앞에서 이런 위치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성질은 사라질 것이다. 마귀는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한 가지, 이 기본 원칙을 배워야 한다.

### 과정 영을 사용하지 않음

아담과 하와는 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만일 하와가 영으로 돌이켰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영과 함께하신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생각 안에 머문다면, 우리의 생각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우리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알맞게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심지어 여러분 속에서 화가 날 때에도, 여러분은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비록 그러한 상황에서 돌이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여러분의 성질을 처리하지 말라. 다만 영으로 돌이키라.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법이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법은 알지만,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기관을 사용해야 한다. 그 기관은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면,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을 사용할 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매우 쉽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접촉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독립적이고 그분을 접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한 경우 여러분은 틀림없이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 안에 있게 된다. 내가 걸어야 한다면 발을 사용해야 하고, 보아야 한다면 눈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접촉해야 한다면, 나는 영을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영은 내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요 4:24). 만일 내가 본다면, 그것은 내가 눈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나의 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며, 우리는 모두 반드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타락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의 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지식 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머리로 취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주의했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8장, 260-264쪽)

### 여자의 씨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여자의 씨이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씨)도 여자의 후손(씨)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씨)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왜 예수님은 여자의 씨라고 불리시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곧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남자의 일부분을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건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많은 때 남편들인 우리는 아내가 없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운명을 정하였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 아내를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사탄이 들어왔다. 사탄이 인류에 첫 번째로 접근한 것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였다. 남편은 정문에 비유될 수 있고 아내는 후문에 비유될 수 있다. 사탄은 남자의 방향이 아니라 여자의 방향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끔찍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사십 년 전에 워치만 니 형제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우주 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집 안에서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한 마리의 쥐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덩을 놓는 것이다. 덩에는 항상 작은 문이 있다. 덩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자이다. 덩을 만드신 분이 문을 만드셨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이 문을 통해 인류 안으로 들어왔다. 사탄은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덩으로 그를 사로잡으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여자의 씨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여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마침내 그녀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사탄이 여자를 통해 들어왔을지라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씨도 여자를 통해 들어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이셨다. 모든 자매들은 이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 들어오셨던 그날 이래로 신약 성경에는 여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나는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매들과 함께 신약에 있는 여섯 명의 마리아에 대해 교통했다. 물론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여인이었다. 여자의 씨는 마리아에게서 나왔고, 그녀의 씨는 바로 예수님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2권, 신약에서 본 놀라우신 그리스도, 18-19쪽)

### 연구 질문:

1. 고린도전서 11 장 3 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행정 안에 있는 머리의 권위의 질서를 안배하셨는가?
2. 창세기 3:1-6 과 디모테전서 2:14 에 있는 사람의 타락에 근거하여 어떻게 우리는 여자가 합당한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는가?
3. 타락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따라 어떻게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셨는가?

### 참고 도서와 추가로 읽을 말씀:

1. 신약의 결론, 메시지 312 번.
2.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18 번 메시지 .
3. 신약의 정경 안에 있는 놀라우신 그리스도, 메시지 1